

## 경건을 겸비한 학문수련

홍 반 식  
(신학대학원장)

신학인의 학문연수는 성경을 표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우주의 기원, 지숙, 종말 등을 바로 이해하는데 있으며, 인간생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체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연마하는 것이다. 이 학문 수련에는 두가지 양상이 있다고 하겠으니, 하나는 그 학문을 깊이 탐구하여 자신이 그 지혜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진 지혜를 더욱 넓게, 또는 깊게 연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로나 글로써 표현하는 일이다.

신학인도 세속학문의 사람들처럼 학문을 탐구하여 남에게 줌으로써 자기가 자라나며 학문의 세계에서 생활을 하게된다. 세속적인 학문인과 신학인 사이에 차이점은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전자는 학문 그 자체의 경중을 따라 학자적 비중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해서 신학인에게는 깊은 학문, 즉 하나님을 중심한 지식에 따르는 신앙인격의 조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앙과 생활이란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신학대학원 학우회가 고려신학보를 발간하는 일은 공부에 시달리는 학도들로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며 가찬할 만하다. 학보발간은 신학인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일이다. 교수들의 글이 적잖게 들어있으니 내용이 착실할 것이며 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학보발간에 즈음하여 명심할 것은 지식 향상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격 향상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이다. 신학인의 수련 환경에서는 저속한 처세술이나 인위적인 처세양식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학문수련은 신앙과 경건생활을 겸비한 전인교육의 표본이 되어지기 바라마지 않는다.

## 改革主義 文書運動을 爲해

허 성 등  
(학우회장)

오늘날 국내 개혁주의 신학계가 가진 가장 큰 약점중의 하나가 신자들이 즐겨찾고 읽을 책이 귀하다는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몇몇의 구미신학의 번역서들과 수종의 설교집이 나와있긴하나 아직 국내 신학자들의 깊이있는 저술들을 찾기는 그리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영적이고도 학문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귀한 책들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로고 분명한 입장으로 기술된 책들을 찾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도 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역시 그러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2세기를 맞는 이 마당에 우리는 미국 보수주의 신학운동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문서운동의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를 다시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일찍 우리 신학교가 시작될 때 자리를 잡아가지도 전에 학우회를 중심으로 '파수꾼' '진리운동' 등의 여러 문서운동에 참여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매체들이 한국교회 재건과 진리운동에 대단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선배님들의 신앙파수와 진리전파와 교회봉사의 결정체였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대학에서는 수종의 출판물이 나오고 있으나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못한 것임을 안타까워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2세기를 맞아 우리의 경건과 학문이 보다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다시 고려신학보 제 9집을 출간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교수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귀한 논문들을 묶어 9집을 펴내게되어 감사한 맘 비길데 없습니다. 강의준비와 여러 교회에서의 말씀의 봉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우리 고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는 축진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특집으로 꾸며진 신약학 부분의 여러 글들은 우리들의 신약학의 이해와 연구생활에 큰 지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9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나삼진 편집부장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숨은 봉사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新約學 研究 入門

朴 聖 福  
〈助教授 · 新約學〉

## I. 신약학연구의 필요성

### 1. 신약성경

신약 성경은 구약과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누는 것은 편이상 그러하다. 사실 사도시대로 부터 신약과 구약의 분리라고 하는 위협이 있어 왔다. 복음을 구약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려는 이해도 그러한 것이며 2세기 후반부에 와서 마르시온(Marcion)은 구약을 완전히 배격하였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 양자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으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었으되”하는 어구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서 번번히 발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롬15:4, 고전10:11f) 신약 성경 자체도 신약 성경을 하나의 전혀 새로운 시작으로 제시한 일이 없다. (히1:1~2) 오히려 성경의 종결부분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 주님 자신도 말씀하기를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다. (마5:17)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분리하는 습관에 좋은 처방이기도 하다. 거기서 베드로는 또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으며 한결같이 성경으로 보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들리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 편지가 자기 개인의 편지만이 아닌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알고 있는 자세이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천사라 할지라도 전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요한도 그의 계시록 22장 18~19절에서 하나님이 저자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신약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 성경의 마지막 종결 부분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를 올바르게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 2. ‘학’ (學)의 요구

신약 성경은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취미나 호기심을 따라서 다룰 수는 없다. 신약 성경 자체가 우리가 할 일을 지시해 주고 있다. 그것은 성경을 지키라는 것이다. (마28:19) 이 명령은 그 가르침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실제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함축하고 있다.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그 내용의 파수와 전파를 함축한다. 이와 같이 ‘읽으라’는 권면이 여러 번 나타난다. (딤후4:13, 계1:3, 요20:31)

사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기초적인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을 망각해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이러한 위험을 겪은 교회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깨어서 지키라(φυλασσω: 딤후6:20, 딤후1:12, 14)는, 보다 강한 낱말의 사용까지도 있게 된 것이다. 신약 성경이 장래에 일어날 전개될 가지 각색의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게 하였다. 소위 ‘학’이라고 해서 다 ‘학’일 수 없는 것을 꼭 유의해야만 된다. (딤후6:20) 바울 당시에 소위 ‘학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며 괴롭혔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의 이 경고에서 대단히 심각한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소위 ‘교육’이며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나 교회를 시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다룬다고 해서 모두 신약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을 다루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움직일 수 없는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딤후3:16~4:5)

### 3. 시간과 말씀

신약 성경은 1900여년 전에 우리와는 거리가 먼 지방에서 기록되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우리는 변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매여있지 않

다는 것이다. 그 말씀은 물론 과거라는 시대에 말씀되었으며 기록되었지만 과거에서 생성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머무는 것이다. 베드로 전서 1장 24~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신해석학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다시 소생케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하신 자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살아계시는 영이 우리에게 머무신다. 그러므로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고아가 된 것이 아니다. (요14:18)

신약 성경이 시간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상에 있었던 구체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이 역사적인 상황과 얽혀 있다. 그러므로 연구의 필요를 분명하게 한다. ‘학’(學)의 필요가 시간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실하여 진 것 뿐이다. (마1:23, 막5:41, 벡후 3:16) 시대가 지남에 따라 성경이 늙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밝혀주는 많은 주(註)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II. 신약학 연구의 분야들

### 1. 신약 성경 헬라어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문서를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케 하였다. 그것은 그 당시의 국제언어인 헬라어였다. 이 성경에 대한 존중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양대로 읽어 보게끔 한다. 그리할 때 번역서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이해(不理解)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헬라어 자체를 거룩하고 신비로운 언어로 생각지는 않는다. 사실 코이네 헬라어(Koine Greek)는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이다.

그릇된 해석에 대해서 올바른 뜻을 파수하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 그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말씀의 수종자들이, 주님이 부탁한 본문을 원어로 읽을 수 없을 때, 많은 그릇된 해석과 주장에 따라 표류(漂流)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와같이 성경 원어의 공부는 아름다운 신앙이며 신중한 말씀에의 파수이다.

### 2. 본문 보존역사

신약 성경의 원본은 다 상실되었다.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많은 사본들 뿐이다. 이 많은 사본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을 두고 소위 ‘본문비평학’(Textual Criticism)이란 연구작업이 등장한 지 이미 오래이

다. 그것은 본문과 비평의 개념을 동일 선상에서 묶고 있는 몹시도 모순된 강좌이다. 신앙의 근본 바탕과 인간의 이성의 자율적인 비판을 연합시키고 있는 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보존 역사는 강좌를 열어서, ‘지키라’고 하시며 ‘지켜주마’라고 하신 그 약속과 사명 수행의 역사(歷史)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본문을 선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에 받은 것을 더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사명을 보다 지혜롭게 수행하고자 한다.

### 3. 신약 시대사

이는 신약 성경시대의 역사며 문화며 종교며 세속 역사적 상황을 연구하는 보조 학문이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계시는 그 당시의 다양한 형편과 역사와 깊이 얽혀 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천명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띄게 된다. 그러므로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자명(自明)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주(註)들을 통하여 밝혀질 필요가 있다. 로마 제국의 초기에 있었던 지중해 동반부의 역사, 문화, 정치, 종교 등의 현상들을 아는 지식은 성경 본문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여 있는 먼지를 털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 4. 계시 역사(啓示歷史, History of Revelation)

세례 요한에 관하여 세속 역사 문서는 말해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전 유대 족속이 대단히 짧은 기간이지만, 몹시도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만이 제공해 주고 있는 이 계시 역사를 도외시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당대인(當代人)들의 반응들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가 없다.

또 예를 들면 많은 서신들이 복음서들보다도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신들의 해석이 복음서를 도외시하면 이는 천박하고 경솔한 접근인 것이다. 바울은 복음서들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사건들이 아니고서는 서신들을 생산하는 사도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서신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복음서가 담고 있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주관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바울이 요한 복음서를 아직 접하여 아직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을 몰랐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신들이 말하는 예수를 알려고 할 때 노스틱(Gnostic) 신화를 연구함보다 오히려 복음서에 나타난 계시 역사의 지식이 보다 훌륭한 빛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 역사는 계시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전개가 전통적임과 동시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5. 성경주석(Exegesis)

주석을 위한 전제 조건들은 실재에 있어서 성경해석학(Hermeneutics)에

서 취급한다. 다시말하면 주석을 위한 원리들을 성경해석학이 취급하므로 성경 해석학과 주석학을 편이상 나누어 할 수 있을 뿐이지 너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주석이란 성경을 읽고 번역하고 그 뜻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며 그것을 설명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석이란 다른 사람의 주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사전, 성구사전, 문법서적들,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참고 서적들, 계시 역사의 지식 등을 다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주석들을 활용할 수는 있다. 주석의 역사를 추적하여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첫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옛적부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석들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주석들에 집착하는 것이 성경을 받은 자신의 주석 작업을 대신할 수는 결코 없다. 말씀의 수종자들은 주석들보다는 주석을 위한 보다 기본적인 도구들로 책장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

#### 6. 정경학(正經學, Canonic)

우리가 정경학이라고 할 때 성경이 자기 자체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증언에 따른 명제적(Propositional) 해설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나 부분에 대하여 있었으며 또 있는 공격들을 여기서 취급한다. 다시말하면 성경 비평의 기술이며 방법들을 여기서 분석하고 반박하게 된다. 소위 신약 총론(New Testament Introduction)이라는 강좌는 그 역사적인 유래를 볼 때 성경 비평적인 작업에서 설정하였던 강좌이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저자, 권위, 내용에 대한 파괴적인 비평의 작업들을 보면 신약 성경의 입문(入門: Introduction)이라기 보다 신약 성경의 탈문(脫門)인 경우가 많다. 변증적인 작업(Apologetical work)이 명제적인 작업(Theological work)과 혼합하면 후자가 전자의 문제화(問題化)의 와중에 부패하고 마는 법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특성에 배치되는 부당한 문제 제기들은 입문 분야에서가 아니라 정경학에서 처리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구과목을 펼쳐볼 수 있다. 이것이 또한 18세기에 나타나서 19세기를 통해서 20세기에 이르고 있는 총론-주석-신학이라고 하는 연구 작업구도(構圖)에 대응한 개혁과 신학 작업의 전통을 따라서 제시해 보는 것이다.

## 新約헬라어 研究 入門

박 종 칠  
(교수 · 歷史神學)

### I. '신약 헬라어'에 대한 몇가지 이해들

“(초보자를 위한) 신약헬라어”라는 표제를 갖고 쓰여진 문법책을 볼 때, 우리는 현대 헬라어와 비교해서 성경에 사용된 2천년전에 쓰여진 특이한 고대 헬라어를 배우는 것으로 보아 넘기기 쉽다. 그러나 이런 표제들을 붙인 저자들의 의도는 단순히 현대 헬라어와 성경 헬라어와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헬라어 어군들과 성경 저자들이 쓰는 헬라어가 격식이나 내용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약헬라어”라고 한 것이다.

성경 저자들이 썼던 헬라어와 현대 헬라어와는 시기적으로도 근 2,000년간의 시기가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별로 이상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이 당시의 헬라어가 다소 여러 형태로 쓰여졌고 또한 말해졌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신자는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헬라어가 사용되었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대 아테네에서 말해지고 있는 헬라어의 실제 근거가 신약 성서에 나타난 것이며, 다른 군들의 헬라어가 아니라고 할 때 더욱 호기심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어떠한 것이며 신약 성경의 헬라어 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원래 헬라 나라가 도시국가에서 연합전선으로 발전된 만큼 개체도시마다 특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도리아어, 에오리크어, 이오니크어의 3군으로 나누는데 테오크리투스는 도리아어로, 사프는 에오리크어로 썼다. 특히 B.C 5세기경에서는 이오니크어의 한 지역 언어인 앳티카어가 권자를